새정치 광주 혁신 선언은 "기득권 타파"

혁신위 '100인 원탁회의'…광주 '텃밭민심' 불만 표출

공천혁명 통한 인재양성에 공감대…오늘 1차 혁신안 발표

'기득권 안주' '계파 갈등' '국민과의 소통 부족'. 새정치민주연합의 침체에 대해 텃밭 유권자들이 내린 원인 진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22일 당이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고 수권정당으로 나아갈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광주지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혁신위는 광주에서 지난 21일부터 1박2일동안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광주시의원, 당원과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타파 방안에 대한 1차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혁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원과 시민 100명이 참여한 '100인 원탁회의'를 열고 지역 민심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당면 문제로 '기득권 안주' '계파 갈등' '국민과의 소통 부족' '선거전략 부재' '2030세대의 정치 참여 기회 부족' 등을 꼽았다. 또한, '보수·진보 이념 논쟁에 지나치다' '정치·경제·교육에 대한 대응과 정책이 약하다' '강력한 리더십의 부족' 등도 당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토론에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으로 '기득권에 안주', '당기율 문란', '책임감 부족' 등을 꼽았고 조국 교수는 '공정한 경쟁 규칙의 사전 확립과 승복 문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또 수권정당으로 가는 방안으로 공천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과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데 가장 많은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원탁회의는 '포스트잇'을 사용한 독특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10명씩 한 조가 된 참석자들은 ▲새정치연합의 문제점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 ▲혁신위의 과제 등을 주제로 각자 의견을 포스트잇에 작성한 다음, 이를 한 곳에 모아 공감대를 형성,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는 방식의 토론을 했다. 토론을 마친 김 위원장은 "제안해주신 의견들을 소상하게 살펴 혁신안을 만들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00인 원탁회의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대학교수들, 그리고 지역의 원로들을 차례로 만나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대로 똑바로 하라' '지금 정신차리지 못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호통을 들었고, 이 모든 것을 회초리로 알고 혁신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혁신위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명백한 해당행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의원들이 제기한 혁신위 정체성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친노 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친노와 호남의 갈등 관계를 구조화하려는 시도가 만들어낸 개념"이라며 "혁신위 구성은 사필귀정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혁신위가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보현 광주시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선거 때만 되면 호남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혁신이 호남의 물갈이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혁신위가 당내 혁신을 넘어, 야권 전체의 재편을 통해 수권 정당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2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당 혁신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열고 참석한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野 사무총장 인선 결국 '文의 손에 달렸다'

새정치 지도부, 대표에 위임…우윤근·김동철 포함 오늘 최종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이 당내 계파 간 대립으로 22일에도 불발됐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사무총장 인선 권한을 문재인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고 23일 최종 발표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신임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 인선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 대표는 '최재성 카드'를 고수했으나 이종걸 원내대표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결정을 하루 미뤘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문 대표에게 위임을 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도 동의했다. 서로 의논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히 이견이 좁혀졌으면 오늘 발표를 했겠지만 이견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문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들었고, 결정은 내일 하기로 했다"며 "우리 당과 국민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문 대표가 당의 화합과 안정, 미래를 위해 넓은 팔로 껴안는 통큰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며 "문 대표가 다 열어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다 열어놓고 많은 논의를 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당 지도부가 '최재성 카드' 외에 우윤근 전 원내대표와 비노 쪽의 김동철 의원 등 호남 출신 3선 의원 등을 다시 후보군에 올려놓는 쪽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최 의원 임명을 강행하려 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이 당이 친노당이냐", "당을 깨자는 것이냐"며 격렬히 항의, 3시간에 가까운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文, 여·야·정 비상대책회의 구성 제안

메르스·가뭄 극복 위해 필요…맞춤형 추경 편성도

김무성 대표는 즉각 거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 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라며 메르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여기(비상대책회의)에서 메르스 피해 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가칭 메르스 특별법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대응과 비교하며 "그때와 지금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해야 할 사령탑뿐이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미 메르스 특위가 활동 중인데, 다시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다"면서 "그 기구가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지도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메르스 추경·가계부채 대책 집중 추궁

이개호 "공공의료 기능 취약…초기 대응 크게 미흡"

정두언 "메르스는 제 2의 세월호"…黃총리 "진상조사"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22일 실시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빚어진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를 극복할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이 크게 미흡해서 조기차단에 실패했다"며 "사태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능의 취약성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공공의료 강화로 국가 의료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호남선 KTX 증편과 요금인하, 장성역 정차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메르스 여파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정부 사과와 세수부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고 규정한 후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메르스 사태도 사태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시스템 붕괴'니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메르스 확산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하겠다"면서 "사태가 정리되면 정부나 병원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① 원 서 접 수 : 2015. 6. 8(월) ~ 19(금)
② 전 형 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 학 원	학위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OO
		신학연구학과(M.A.T.)	OO
		유아교육학과(M.Ed.)	OO
		음 악학과(M.A.)	OO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OO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OO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OO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OO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투데이 경매

대인동 중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음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780㎡ 건물1993㎡
감정가24억7천
최저가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 424㎡ 건물 993㎡
감정가9억5천
최저가7억

운암동 대단지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건폐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NAVER 검색창에 단비플라워를 쳐보세요
단비플라워

축하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